



회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28년 6월 14일, 마틴 해리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가족 몇몇에게 금판에서 번역한 최초의 원고 116쪽을 보여 주기 위해 원고를 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를 떠났다. 바로 다음날, 조셉과 에머의 첫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름을 엘빈이라고 지었다. 아기는 그날 죽었으며 에머의 건강은 죽음 직전에 이를 만큼 악화되었다. 선지자의 모친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동안 에머마저도 아기가 가 버린 곳으로 가게 될 듯 보였다. 한동안 그녀의 운명이 너무나 불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은 2주 동안 평온하고 고요한 잠을 한 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간 후, 원고에 대한 그의 걱정이 너무 커진 나머지 아내의 상태가 약간 회복되고 아내가 좀 더 힘을 얻게 되자 그는 즉시 원고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기로 했다.”¹

7월에 에머의 제안으로 선지자는 에머를 장모님이 보살피도록 맡기고 역마차로 뉴욕 주 맨체스터 군구에 있는 부모의 집으로 갔다. 선지자가 여행한 거리는 200킬로미터 가량이었으며 이삼 일이 걸렸다. 첫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원고에 대한 큰 염려로 인해 조셉은 여행을 하는 동안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역마차의 유일한 동승객이었던 다른 여행자가 선지자의 약해진 상태를 보고는 마차 역에서 32킬로미터나 떨어진 스미스의 집까지 동행하겠다고 했다. 도보 여행의 마지막 6.5킬로미터 가량에 대해서 선지자의 모친은 이렇게 회고했다. “그 나그네는 조셉을 팔로 부축해야 했다. 조셉은 힘



회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지 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다 빠져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었고 또 선 채로 잠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었다.”² 부모의 집에 도착한 즉시 선지자는 마틴 해리스를 불러 달라고 했다.

마틴은 오후 일찍 풀이 죽은 비참한 모습으로 스미스 가에 도착했다. 그는 원고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원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셉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 모든 것을 잃었구나. 모든 것을 잃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죄를 짓고 말았구나. 간구해서는 안 될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한 것은 나야 …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선단 말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합당치 않다는 꾸짖음을 들어 마땅하구나.”

날이 저물어 가는 동안 선지자는 크게 낙담하여 “울고 슬퍼하면서” 부모의 집안을 서성거렸다. 다음날 그는 그곳을 떠나 하모니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 가능하다면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얻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힘껏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³

주님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한 것에 대해 선지자를 엄하게 꾸짖으셨으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조셉이라, 너는 주의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범법으로 말미암아, 만일 네가 깨어 살피지 아니하면 너는 타락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3:9~10)

한동안 주님은 조셉에게서 우림과 둠뎀 그리고 판을 가져가셨다. 그러나 이들은 곧 그에게 되돌려졌다. 선지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천사는 우림과 둠뎀을 내게 돌려주었을 때 기뻐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충실함과 겸손함을 기뻐하시고 끈기와 근면으로 기도를 드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으며,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 임무를 잘 수행했으므로 … 다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⁴ 조셉이 자신의 앞에 있는 위대한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동안, 그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감미로운 느낌과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새로운 결심 때문에 강화되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같이 된다.

월포드 우드럽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기록했다. “선전자 조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악을 꾸짖으며 비난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의 상태에 적합한 말을 몇 마디 전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권의 권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회중은 성도임을 자처하지만, 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은 벌어지고, 그 대신 사탄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지 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중에는 도적,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몇 가지 일에 충실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도 성실해야 합니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선한 것을 구하십시오.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죄악에 반대한다고 선포합니다.”⁵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면전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악마는 속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물을 놀랍게 변질시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아연하게 합니다. … 죄악은 성도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의 축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축복은 마치 미시시피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⁶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⁷

“모든 사람의 마음은 회개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심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받아보지 못했을 만큼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⁸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서 악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들으라, 땅 끝에 있는 너희 모두여-너희 모든 제사들, 너희 모든 죄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⁹

“우리 모두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버리고 의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¹⁰

“무신론자들은 죽음에 직면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무신론은 끝이 납니다. 영원한 세계의 실체가 강력한 힘으로 자신 앞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지주와 버팀목이 그를 저버릴 때, 그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의 죽음을 보듯, 청소년과 중년, 또한 아기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세계로 불러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개를 미루거나 임종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이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건강하며 정신에 힘과 활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¹¹

“성찬은 [1835년 3월에] 교회 회원들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성찬 집행이 있기 전에 나는 교회에서 이 의식의 적절한 절차에 대해 말했으며 주님 앞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행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합당하지 못하게 이 의식을 취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어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오래 그가 성스러운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주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부친이 환영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께서 그를 구속의 날까지 사탄에게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¹²

“회개는 하루하루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¹³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동생인 윌리엄 스미스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모욕적으로 대했을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네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충고하고, 네가 간악한 영에게 굴복함으로써 내가 예견한 어려움과 슬픔 속

으로 네가 빠져드는 것을 구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그 악한 영에 굴복하는 것을 너는 열정이라 하였으나, 너는 그 악한 영을 자제하고 가라앉히며 극복해야 한다. 내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왕국에서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의 뜻이 그분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기를 요구하신다.”¹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신다.**

1835년, 조셉 스미스는 교회에서 배도해 나갔지만 다시 회원으로 돌아오고 싶어했던 하비 위틀룩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나는 1835년 9월 28일자로 된 형제님의 편지를 받고서 그것을 두 번이나 읽었으며, 그 편지에 적힌 내용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감정의 물결을 막아놓은 마음의 수문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형제님이 주님과 이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형제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님의 경우에 대해 주님께 여쭙었으며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비 위틀룩에게 주는 계시.

“진실로 주께서 그대에게 이같이 이르노라-나의 종이었던 하비는 나와, 내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며, 내게 지은 모든 죄를 잊고 이제부터 유덕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내 교회의 기둥과 머리로 임명한 자들의 지시 아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보라, 주 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노라, 그의 죄는 하늘 아래에서 사하여질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질 것이며, 내 귀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를 적대하는 기억이 기록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듯 그를 들어올릴 것이며, 그는 높은 곳에서 찬양 받을 것이며, 제후들 가운데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고, 나에게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악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화살통에 준비된 화살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속히 준비하여 커틀랜드에 있는 네게 오게 하라. 그가 이후로 네 모든 권고에 귀를 기울일진대, 그는 그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요, 주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실같이, 가장 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고자 하며, 위선을 행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자 합니다.(니파이후서 31:13 참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몸소 낮추시어 형제님에게 말씀하시고, 형제님의 의무를 알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형제님의 겸손함을 보셨으며, 형제님이 돌아오신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이 형제님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꺼이 형제님과의 우정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이려 합니다.”¹⁵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 늦어 버린 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¹⁶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116쪽의 분실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담긴 기록을 읽으면서(69~71쪽),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는가? 회개에 관한 그의 경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는가?
- 72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복습한다. 이 장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권고한 대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여러분이 더욱 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중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회개를 미루는 일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경고를 깊이 생각한다.(73~74쪽) 회개를 미룰 경우 어떤 결과들이 올 수 있는가?
-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한 선지자 조셉의 권고를 공부한다.(73~76쪽) 왜 회개는 겸손한 마음 없이는 불완전한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76쪽)

- 주님께서 하비 위틀록 형제가 진지하게 회개할 경우 그에게 하신 약속에 유의하면서, 조셉 스미스가 위틀록 형제를 위해 받은 계시를 읽는다.(75쪽)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교자”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냐 느낌이 드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후서 7:9~10; 모사이야서 4:10~12; 엘마서 34:31~38; 교리와 성약 1:31~33; 58:42~43

주

1.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 manuscript, book 7, 1~2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manuscript, book 7, 5쪽, 교회 기록 보관소.
3. Lucy Mack Smith가 인용함,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 manuscript, book 7, 6~9쪽, 교회 기록 보관소.
4. Lucy Mack Smith가 인용함,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manuscript, book 7, 11쪽, 교회 기록 보관소.
5. *History of the Church*, 4:588; 원문에는 대괄호 안에 말씀이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4월 10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6. *History of the Church*, 4:605;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7. *History of the Church*, 4:479; 1841년 12월 1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8. 1842년 4월 28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 상호부조회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Minute Book 1842년 3월~1844년 3월, 34쪽, 교회 기록 보관소.
9. *History of the Church*, 6:317; 1844년 12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블럭,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6:363; 1844년 5월 12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토머스 블럭이 보고함.
11. *History of the Church*, 4:553~54; 현대화된 구두법; 1842년 3월 20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12. *History of the Church*, 2:204; 1835년 3월 1일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 평의회 모임 기록에서 발췌.
13. *History of the Church*, 3:379; 1839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4. *History of the Church*, 2:342;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5년 12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5. *History of the Church*, 2:314~15;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가 하비 위틀록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5년 11월 1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6. *History of the Church*, 4:425; 1841년 10월 3일에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개최된 교회 대회 모임 기록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0월 15일, 577쪽.